대구광역일보

since 1996 28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2024년 8월 26일 월요일(月) I 제5444호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서울일보 상대 법적대응

김 의장, 변호사 선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무고죄로 경찰 접수 파장

김성호〈**사진**〉 영덕군의회의장이 매우 성났다.

각종 음해와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크게 실추 했다는게 이유다.

발단은 서울일보 모 기자가 김 의장을 상대로 몇차례에 걸쳐 비판기사를 쓰면서 불거졌다. 이 신문은 영덕군의회의장 벌건 대낮 술판, 영덕군의회의장의 인척 명의로 된 토지에 성토 논란, 영덕군의회의장 관용차량 이용 등을 보도했다.

때문에 김 의장은 반론권없이 기사를 썼다고 분개했다.

그는 "일부 주민의 편향된 제보를 그대로 기사화 했다"고 목청을 한껏 높였다.

김 의장은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그는 "8월 초 변호사를 선임,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접수,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일보는 지난달 28일 '영덕군의회 의장 벌건 대낮 술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신문은 "군의장이 민의를 살펴야 할 시간대인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벌건 대낮에 술판을 벌인 상식 없는 행동을 보여 군민들로부터 실망감을 더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군의장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영덕 오보리 해수욕장에서 대낮부터 자리를 잡고 인근 군민들을 몇 명 차례로 불러가며 업무상 기밀이 되는 의정 활동의 일부를 발설하는 취중 행각을 벌였다는 제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선을 목격한 주민 A씨는 "모 언론사의 보도는 완전히 조작된 허위사실이다. 의장은 이날 해수욕장 본부를 찾아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수상레저 관리소 공사 현장으로 오시길래 '의장님 오셨네요'라고 하니, 피서객이 '영덕군 의장님 입니까' 라며 자리동석을 권유해 잠깐 함께 한 것은 맞지만, 술을 마신 적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기사에 나온 사진도 해당 언론사 기자가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누가 사진을 찍어 보냈고, 기자는 편향적인 사고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같은 신문 내용은 "악마의 편집'으로 못박았다.

조여은 기자

가마솥 더위 언제 끝나나 용광로더위가 연일 계속이다. 25일 대구·경북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계속됐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은 29~35도다. 대구·경주·고령·성주 35도, 영천·상주·영양 34도, 문경 33도, 봉화·영주 32도, 울진 29도다. 이날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공원물놀이장에서 한 어린이가 조형물에 엎드려 더위를 식히고 있다.

작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241만명 병원 이용 無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2022년 224만8020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셈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5만3055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을 단순히 계산하면 4.69%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실제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761만3061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4765만6823명, 2020년 4916만1958명, 작년 4904만761명 등을 보였다.

의료미이용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건강보험 적용 인구)에서 진료 실인원(의료이용자)을 제외한 인원이다.

의료이용자는 입원 및 외래 이용 중복 인원을 제외해 값이 다를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습관적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올렸다.

황태용 기자

348억 투입 '울릉 태하1리 연안 정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양수산청이 울릉군 태하1리에 348억원을 들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태하1리는 울릉 8경중 하나인 태하낙조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하지만 기상악화 시 높은 파도에 따른 배후지역 도로 침수 등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 348억원을 투입해 수중방파제 225m, 월류방지공 등 '태하1리지국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임영훈 포항해수청장은 "이번 울릉 태하1리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침수 피해 저감 및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홍준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괴담정치 맹폭

국힘 모 의원 행정 업무전반 자료 제출 요구 공문… 황당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홍시장은 국민의 힘을 향해 국회의원 국감자료 요구에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당 의원이 황당한 요구를 하다니"하면서 맹폭을 가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법석 1년, 괴담정치"라고 퍼부어댔다.

▣국힘, 국감자료 요구 황당

홍 시장이 국감자료 요구에 발끈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구시에 보낸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당 수도권 어느 국회의원이 황당한 공문을 보내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예산서 결제문서 목록 등 결제서류 일체를 보내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대구시는 올해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고 지방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왜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대구시는 국가사무와 국가위임사무만 자료제출을 했다"며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당 의원이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다니 어처처니 없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괴담정치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인사들이 괴담정치로 정권을 흔들려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된 24일 SNS를 통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선동을 한 지 1년이 되자 이젠 그 오염수가 5년,10년 후 온다고 말을 바꿔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며 오염수 괴담·선동을 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1년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는 건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다"며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나선 것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 않나"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민주당의 괴담정치, 진보 진영의 괴담선동 사례로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을 들었다.

홍 시장은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어떤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김규리를 불러 세웠다.

또 "노랑머리 가발 쓰고 내 몸 타들어 간다고 하고, 심지어 성주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사드 괴담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나"고 따졌다.

그는 "괴담정치로 국민을 선동하고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무엇을 노리냐"며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고 혀를 찼다.

조여은 기자

I 단체장 일정 I

최기문 영천시장은 26일 오후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전직원 친절교육 팝페라 친절콘서트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6일 오전 달성군청 군수실에서 열리는 (재)달성문화재단 임원 임용식에 참석한다.

2025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

‘청도 새마을운동 정신’ 세계에 알린다…

청도군, 세계 정신올림픽 준비 연합학술대회 성황
정신혁명 주제 대회 개최
국내외 유례 없는 행사…

화랑정신과 새마을 정신 발상지 청도에서 세계 정신 올림픽(World Mental Olympics) 준비를 위한 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지난 23,24일까지 이틀간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열린 세계 정신 올림픽 준비를 위한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대회 준비위원회는 조직위원장에 조덕호 대구대 명예교수, 집행위원장은 박상호 동국대 객원교수, 실무위원장에는 권성문 대구대 교수로 구성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연합학술대회가 단순한 학술적 교류의 장을 넘어,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의 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찾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조화, 글로벌 공동체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에 이철우 경북지사, 김하수 청도군수, 이만희 국회의원,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내외 주요 내빈이 자리했다.

이날 △대한지방자치학회 △동북아 관광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ESG학회 △골든에이지포럼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다수의 학회가 참여했다.

미국, 일본, 아프리카 등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연합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는 △대한지방자치학회 △동북아 관광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ESG학회 △골든에이지포럼 등 다양한 학회가 참여, 학술대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행사는 송건섭 새마을운동연구센터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덕호 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 내빈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하수 청도군수 환영사, 이철우 경북지사 축사,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소진광 (전)새마을중앙회 회장은 ‘밑으로부터의 정신혁명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했다.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은 ‘ESG 시대, 한국 정신 혁명의 근원’을 주제로 강연했다.

1일차 23일 오전 세션에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임형백 성결대 교수) △ESG 정신과 새마을운동(장동희 前새마을재단 대표이사) △정신문화의 기초이론으로서 정신철학(이해영 영남대 명예교수) △화랑 오계와 법계 명성의 계율관(원법스님 청도 운문사) △우리 지류의 우수성과 보존문화 발전방향(안병목 배첩장)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에는 ‘정신올림픽 성공을 통한 청도군 마을의 세계화를 꿈꾼다’(기화서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2일차 토론회는 △골든에이지의 삶의 질(김미령 골든에이지포럼 대표) △인공지능의 한계와 기술적 사유(박성우 우송대 교수) △AI와 인간: 포스트 휴먼의 정체성(박근서 대구가톨릭대 교수) △물질에 이어 정신문명의 중심(조원명 前브루나이 대사) △청도군 새마을 수요발굴과 대응방안(송건섭 대구대 교수)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미래’(최병재 대구대 교수) 등을 발표했다.

연합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 위기 △지역소멸 위기 등 글로벌 아젠다 △청도군의 정신문화 자산인 화랑정신 △새마을정신과 접목시켜 자연·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찾는다.

새마을운동의 재조명과 새마을정신 연구 및 교육, 진흥을 통한 세계화가 목표다.

화랑정신과 새마을정신으로 대표되는 청도의 정신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한국의 정신과 사상을 다양한 시선에서 탐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유·불·선·기 회통 섹션(어떤 것을 항목별로 구분해 나눈 것)에서의 종교와 사상의 융합은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로 참가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정신 혁명’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행사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학회가 참여 하지만 다른 종교와 사상이 융합된 유·불·선·기 회통 섹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바 없다.

오직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정신과 사상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도가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깊다.

대구대 새마을운동연구센터는 이틀에 걸쳐 열린 연합학술대회에서 도출되는 학문적 이해와 논리를 바탕으로 청도군의 정신문화인 화랑정신과 새마을정신을 체계화하고 재정립시켜 정신혁명의 세계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의 이론적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한다.

앞서 16일에는도미니카공화국·온두라스 연수단 일행 40여 명이 새마을운동발상지인 청도군을 방문했다.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서 연수단 일행은 새마을운동의 생생한 활동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배웠다.

한국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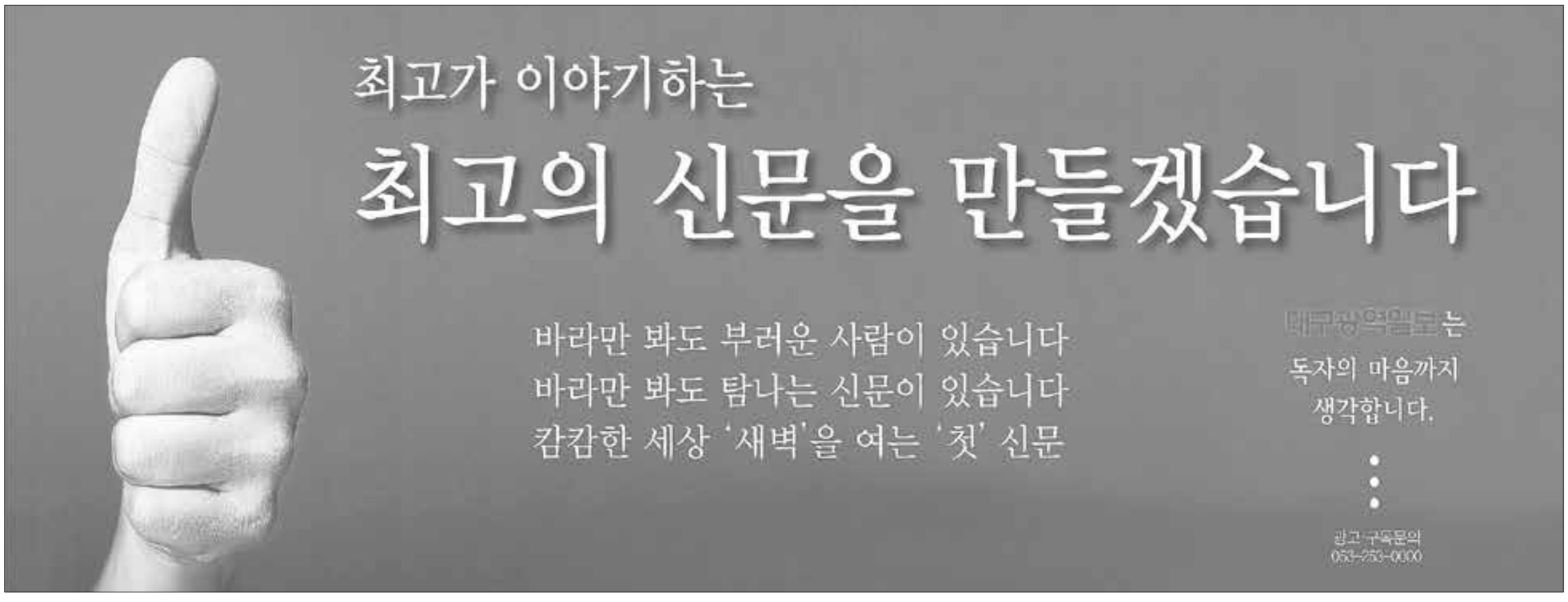
방문은 군의 문화적 유산과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해외 연수단을 통해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됐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7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MOU를 체결하고 2022년부터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2019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자국 내 새로운 시범마을을 선정해 세계화 사업을 하고있다.

조여은 기자



김희수, 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위촉

김희수 도의원이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위촉됐다. 김 도의원은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4선이다. 제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 도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를 해 왔다. 경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은 국가별 지방의회간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교류 증진과 양 지역의 상호이익을 위해 교류확대를 확장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희수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은 "경북도의회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 경북도의 발전과 친선교류 대상 지방의회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후반기 영천시의회 의정활동 '탄력' 운영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시민세금 들어가는 만큼
낭비되지 않게 예산짜라

후반기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가속도가 붙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키고 강도높은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6건 △영천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계획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등 4건의 계획안을 보고 받고 시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에서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과 관련,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수립,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꾀하기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협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소통,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성난 칠곡군의회… 군부대 이전 똑바로 해라

지역·주민 '갈등' 초래
대구군부대 통합이전
'공정·투명' 추진 요구

칠곡군의원들이 뿔났다.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 상생과 통합을 위한 첫 단추다.

때문에 칠곡군의회는 지역갈등, 주민갈등 초래하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방부가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시군에 군부대(854만㎡)와 함께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된 종합훈련장(1043만㎡)도 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뒤늦게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대구시와 국방부에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2년 시작된 대구지역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사업은 칠곡군의 발전과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사업으로 11만 칠곡군민과 칠곡군, 칠곡군의회는 군부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똘똘 뭉쳤다.

군 의회는 최근 국방부의 300만평 규모의 소음과 화재가 우려되는 공용화기 군 훈련장 요구는 대구시와 구미시 등 도심에 인접한 우리 칠곡군과 더불어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군부대 유치신청을 받을 당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지난 7월 중순 별도의 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2주 만에 훈련장 부지 제시 요청은 유치 지자체간 지역갈등과 주민들간 갈등을 일으키는 공정하지 못한 절차라고 못박았다.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 전체 군의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주민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데 일방적인 계획변경 및 사업추진은 11만 칠곡군민의 그간의 유치를 위한 열망과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강 두류 공단 폐기물 처리 사업 인용 논란

민주당 경북도당, 안강 두류 공단
폐기물 처리 사업 승인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6년 전 기각한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번복 인용한 경북 행정심판위원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동일 사안에 대해 이전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행심위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 행정심판위는 전국 시도 단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실태를 조사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행정심판위는 2018년 1월, A업체가 신청한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의 폐기물매립장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건'에 대해 기각했다.

당시 경주시는 매립시설의 용량 과다,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하천 오염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 차질 등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냈다.

행심위가 경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 기각하자,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3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B업체가 2020년 8월 해당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보완 통보를 받고 중단됐다.

지난해 8월에 C업체가 다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1월 부적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업체가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경주 안강지역은 주민들이 거리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수년째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사업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주민 다수의견과 경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던 행심위가 이를 뒤집고 사업체 측의 손을 들어 번복한 이번 인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고,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심판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

김정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대표 발의

PF사업 안정적 추진
프로젝트 리츠 도입

김정재(**사진**)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와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190조원(2022년 기준)으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국민들 도 소액으로 투자해 부동산투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도입된 후 자산 규모가 98조원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 지원 센터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애초의 PF 사업보다 안정적이면서 리츠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PF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는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안정적인 PF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김 의원은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산업도 선진화되는 만큼 리츠 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말썽'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 떨떠름

시민단체 "애초 징계 형평성
안 맞아…편 가르기가 문제"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체결해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았던 권경숙 중구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권 구의원은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대구 시민단체 반격했다.

애초 징계를 형평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게 이유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구의원에 대해선 30일 출석정지 시키고 권 구의원은 제명 처분을 하는 등 편을 가른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 그렇다 하더라도 권 의원 본인이 마치 별 잘못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지방의원의 윤리적 덕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부터 중구의회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 구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권 의원을 제명했다.

배 구의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2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원고 권경숙 중구의원이 피고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른 의원의 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원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조금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청문회 앞둔 김문수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생각"

건국 시점… "임시정부 법통
이어 1948년 정부수립 선포"
오늘 김 장관 후보 인사청문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다 이후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장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도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는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수성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앞장

수성구 범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협의체가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독거 어르신 1세대에 화장실 세면대와 현관 방충망 등을 설치했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은 "더워도 방충망이 없어 모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어두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열어둘 수 있어 좋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범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추석 명절 정나누기 사업, 밑반찬 지원사업, 삼계탕 나눔 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실시하며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홍준표, 대구 미래 100년 산업 초석 다진다

市,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 R&D '트리플크라운' 달성

대구시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분야 '5인승급 AAM상용기체 통합형 전기엔진 개발', '경량화된 최대중량 탑재 무인 AAV 비행체 개발'과 전기차 분야 '모빌리티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 등 정부공모에 잇따라 선정돼 총사업비 595억원 확보했다.

이로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기술개발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7월 국가산업단지에 '모빌리티 모터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 국내외 자동차 부품기업을 유치하고 SKT, 한화시스템, KAI 등과 MOU를 체결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산업부와 중기부의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 연구 개발(R&D)'분야 공모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미래모빌리티 분야 R&D 국비 확보에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게 됐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5인승급 AAM 상용기체용 통합형 전기엔진 개발' 과제는 총사업비 334억 원(국비 220억, 민자 114억)을 투입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개발 및 인증 경험과 삼보모터스, 평화발레오, 유림테크 등 지역 기업의 전기차 모터 제조 기술력을 결합해 UAM 항공용 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대경본부), 생산기술연구원(대경본부), 경북대학교 등 연구기관·대학의 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 수행을 통해 UAM 모터 핵심기술을 획득하고 양산해 KAI가 개발 중인 5인승급 UAM 기체에 탑재할 계획이며, 지역 기업의 항공산업분야 진입과 매출 상승의 기회로 이어져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경량화된 최대중량 탑재 무인 AAV 비행체 개발' 과제는 총사업비 70억 원(국비 54억, 민자 16억)으로 4년간 진행된다.

지역 드론기업인 무지개연구소가 사업 총괄을 맡아 ICT 기업인 베이리스, IGIS, 스카이엔터프라이즈, 엠엠피 등의 기업은 물론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대학과도 협력해 화물 배송용 무인 기체를 개발한다.

현재 화물배송 중량은 최대 30Kg 가능한 수준이나, 이번 연구과제에서 50% 이상 향상시켜 45Kg 화물중량을 탑재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고 장거리 통신체계를 고도화해 UAM 고도(300~600m)에서 비행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성공적인 비행체 개발을 통한 UAM 물류·화물 서비스 도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심 내 소음, 항공안전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시민 수용성 확보 및 인식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모빌리티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2024년부터 5년간 191억 원(국비 100억, 시비 89억, 민자 2억)으로 모빌리티 모터 혁신성장 지원센터와 모터의 고속화·전동화 품질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현장맞춤형 기술지도 등을 지원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가 참여해 전동화 부품기업의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지원과 모빌리티 모터 부품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모빌리티 모터특화단지 내에 구축될 모터 성능평가 인증센터와 연계해 첨단 모빌리티 핵심기술 소재·부품 개발에 한층 더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도심항공모빌리티, 전기차 분야 정부 공모 과제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기업, 산학연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육성에 한층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UAM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핵심부품인 모터의 자립화와 국산화 추진은 대구 미래 100년 산업구조 변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가 향후 미래 신산업중심의 산업개혁으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배광식, 북구 미래 주민 목소리서 찾아…

새달12일까지 권역별 7회에 걸쳐 민생탐방

배광식 북구청장은 오는 27~9월 12일까지 기간 중 7일간 권역별로 동 방문을 한다.

행사는 지방시대의 중심인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동 방문은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 대표 등 지역주민 총 450여 명이 참석한다.

주민과의 대화·소통의 시간에는 크게는 지역숙원사업, 작게는 생활 주변의 소소한 불편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수렴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권역별 일정은 △27일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을 시작으로 △ 28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29일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30일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9월 10일 칠성동 행정복지센터(고성동, 칠성동, 노원동) △9월 11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9월 12일 읍내동 행정복지센터(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순으로 개최되며, 매회 15시부터 약 2시간 내외에 걸쳐 실시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북구의 내일을 만들어갈 원동력을 지방시대의 중심인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청은 구청장 동 순회 방문에서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들은 주관부서를 지정, 우선 처리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

2024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 썸머 페스티벌…

어린이집 지원사업 영어놀이 효과 상승

달성군은 '2024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군의 어린이집 영어교사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의 일환이다.

지난 20~22일까지 3일간 달성군민체육관 외 2개소에서 지역의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썸머 페스티벌은 아이들이 그 동안 배웠던 영어를 재미있는 놀이와 함께 다시 상기시켜줌으로서 사업효과를 높여주고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달성군민체육관(테크노폴리스 권역),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원·옥포 권역), 계명문화대학교(다사·하빈권역)에서 각각 시행했다.

로봇 댄스 공연·레이싱카 체험·영어 프리마켓 체험·블럭쌓기 놀이 등 행사장별 개성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영어교사 지원사업이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등원하는 아이들이 영어로 인사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느낀다. 이번 페스티벌이 영어를 훨씬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더 밝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더욱 가치 있는 영유아 정책을 편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2024 3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통 군위군협의회 통일활동 사업계획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지난 23일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을 주제로 '2024년 3분기 정기회의'(이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기회의는 8.15 통일 독트린 및 민주평통 주요업무 추진방향 공유(최수용 간사),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전기식 포럼연구위원 토론진행), △탈북민 멘토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 기획안 발표(배건일 자문위원), △군위군협의회 하반기 운영방안 및 주요 통일활동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우석 협의회장은 "군위군협의회는 통일의견 수렴과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널리 홍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민주평통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정책건의"를 강조했다.

김진열 군수는 "협의회의노력과 열정이 군위에서 통일의 강렬한 에너지가 되고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통일 기반 조성과 군위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8.15. 통일 독트린 설명자료 및 민주평통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통일 독트린 실천을 위해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활동 및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위군협의회는 8.15. 통일 독트린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도, 북한이탈주민 포용 및 북한인권 증진, 지역 현장에서의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박재성 기자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강화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 개최 젊은 작가 40명 참여, 다양한 장르 선뵈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새달 7~10월 6일까지 30일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이라는 주제로1970년대 현대미술을 이끈 김영진, 곽훈 작가부터 청년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젊은 작가들까지 총 40명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제13회를 맞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는 매년 동시대미술의 경계를 아우르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

올해는 본 미술제의 모태이자 정신적 근간인 1974년'대구현대미술제'의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본 미술제에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강효연 예술감독은 1974년도 당시 청년들이 만들어 낸'대구현대미술제'의 50주년을 기념해 청년작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역사성과 지역성, 대중성까지 고려한 총 40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낭만, 영원, 꿈, 믿음, 도전, 유토피아'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 이라는 전시주제를 정했다.

전시주제를 통해 '생과 사'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에 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인간사 너머에 영원함이 있을 거라고 믿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멸과 영원을 갈망하는 욕망과 바람의 형태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펼쳐나간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내 전시장까지 전시 영역을 확대, 다양한 실험적 작품을 선보인다.

강정보 디아크 광장의 경우 70년대 현대미술을 이끈 곽훈 작가의 퍼포먼스와 김영진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미디어, 설치, 조각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된다. 달성문화도시센터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작가 5명의 수상작 전시와 달성미술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강정보 디아크 광장 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나 전년도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때 큰 호응을 얻은 디아크 실내 전시장도 회화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며, 달천예술창작공간 제4기 입주작가 6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에 자세한 내용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홈페이지 (www.dalseong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달성문화재단 ☎ 053)668-4242로 문의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상주중앙시장, 열정으로 무더위 극복

상주중앙시장이 시장을 찾는 고객들과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닭죽 나눔행사'를 했다.

행사는 지난 21일 열렸는데 남성2통 마을회와 부녀회 주관으로 진행했다. ㈜올품에서 생닭 50마리를 후원했다. 상주시이웃사촌복지센터 물품 지원(100만원 상당)과 자원봉사 참여 등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이어졌다.

장혜자 남성2통장은 "건강한 여름 보내고 상인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상주중앙시장도 많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규 남원동장은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지원해 준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가적 큰 틀…경북·대구 행정통합 절대 필요

이철우, 행정통합 핵심 완전한 자치·재정권 확보…재차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열린 (사)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인구,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불균형을 들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중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전했다.

그는 경북·대구는 197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구 1등인 지역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1981년 대구 분리 이후 수도권 인구는 2배가 늘어나는 동안 대구·경북의 총인구는 40년 전과 다르지 않고, 갈수록 지역 경제력도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총인구를 보면 '1966년 447만명(1위) → '1980년 495만명 → '2022년 496만명이다.

경북 GRDP는 '1995년 28조 6064억원(4위) → '2022년 115조 341억5000만원(5위)이다.

대구 GRDP는 '1995년 16조 ,089억원(9위) → '2022년 63조 189억4000만원(11위)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열린 (사)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에서 특강을 하고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 지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지방이 살아남고, 지방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시 규모의 법칙에 따라 전 세계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메트로폴리탄)들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구경북공항과 항만이 있어서 다국적 기업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완전한 자치권 △확대된 재정권과 자율성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그 전제조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시·도민들의 공감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청사 문제로 많은 시도민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90% 이상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합심해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고 청사 등 남은 문제는 현재 실무 논의 중인데 많은 진전을 보여 그 뜻이 곧 모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상생상화(相生相和=사람, 물건, 일의 인과관계가 서로를 살리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 화합 융통하는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출발점이자, 다른 광역지자체 통합 가능성의 시금석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시도민과 함께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성용 기자

영천시,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주민설명회…

대구 군부대 이전 관련 추진 경과 공용화기 사격장 현황 등 설명…

영천시는 지난 7월 국방부의 (가칭)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공용화기 사격장) 요구에 따라 훈련장 후보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이틀간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그간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경과 △국방부가 요구한 공용화기 사격장 현황 및 후보지 위치 △향후 평가 진행 절차 등의 내용을 다뤘다.

그 외에도 이전 대상 부대, 부대 이전 후보지 현황 등도 함께 설명했다.

설명 이후에는 국방부의 공용화기 사격장 요구에 관한 다양한 질의에 대해 상세히 응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에 나선 김성현 정책기획실장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방부의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 제출 요구에 따라 화산면과 화남면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해 제출했으며, 국방부와 대구시에 훈련장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이전지 선정을 요구한 상태이다. 최은하 기자

구미~군위 고속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총사업비 1조 4965억원 경부·중앙선 직접 연결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

경북도가 계획하는 구미시와 군위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 제6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선정하고, 고속도로는 유일하게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반영됐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연장 21.2km, 총사업비 1조 49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교통망으로 구미시(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해 군위 분기점(중앙고속도로)을 직접 연결한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의 접근성이 완성된다.

사업은 2019년부터 경북도가 사업을 발굴하고 건의하기 시작해 2022년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고속도로는 도시발전으로 도심지 통과가 불가피했던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2400업체의 물동량을 책임지게 된다.

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와 함께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에 사업의 필요성을 부단히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2026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7년부터 3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부터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치권과 적극 협조해 나간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에도 큰 동력이 되는 만큼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상주시, 773억 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

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상주 새로운 도약 투자

상주시는 2024 제2회 추경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77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3148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국세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재정여건 속에서도 살고 싶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상주를 위해 이번 추경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기정예산 1조 2375억원 보다 6.25%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기정 1조 1557억원 대비 740억원(6.40%) 증가한 1조 2297억원이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124억원에서 15억원(12.10%) 증가한 139억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694억원 대비 18억원(2.59%) 증가한 712억원이다.

시의 추경 편성방향은, 한국형 화이트존 정책인 '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용역예산 반영과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한 도비 포괄매칭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업을 편성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재창조를 통한 활력 넘치는 상주 건설에 방점을 두었다.

시는 지난 7월초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33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추경에도 수해복구 공사예산을 30억원 이상 편성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추경 주요사업은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1억5000만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1차분) 3억5000만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립 70억△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8억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 20억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사업 16억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부지매입 15억이다. 이경호 기자

고령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데이

고령군과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손잡고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23일 관내 카페에서 청년 창업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남철 고령군수와 청년 창업가들이 함께 창업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 청년 창업 기반을 확립했다.

관내 카페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데이'는 청년 창업가 상호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1차 리빙랩의 정책 과제들에 대해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실제적인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되어 더욱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년 창업뿐 아니라 고령에 살면서 청년이 느끼는 삶에 대한 이야기와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심도 있게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였다.

배영백 기자

道,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 가로막는 규제 발굴

2회차 저출생 극복 저출생 지방소멸 시대 규제혁신 특강

경북도가 지난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했다.

공부 미팅은 지난 1일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연구팀장을 초청해 '사회·문화 심리적 관점을 통한 한국 사회 저출생 현상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데 이은 2번째다.

2회차 공부 미팅 전문가로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초청했다. 임 과장은 20여년 동안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규제정비를 이끈 규제 분야 전문가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폐해로는 △기업이 효율적·경제적으로 노력할 유인의 상실 △규모의 경제 실현 저해 △규제 조항의 준수를 위한 순응비용 지출 △초과이윤을 R&D나 혁신 등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었다.

기술 융합, 기하급수적인 기술 진보 속도, 플랫폼 경제라는 특징을 지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연성', '민첩성'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와 규제로 인해 국내 도입이 좌절된 해외기업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규제개혁이 실제 경제활동 촉진에 큰 영향을 끼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시각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의 논리와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 모형을 제시했다. 지역 간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특성이 다양하기에 "저출생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강 후 도 및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관 등은 저출생 분야의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낮은 대우를 받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채용하고 민간 등으로 파견이 필요한데 관련 법령에 돌봄 종사자는 파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한다.

실수로 버린 1500달러…쓰레기 더미서 찾아준 안동 공무원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들이 주민이 실수로 버린 미화 1500달러를 쓰레기 더미를 뒤져 찾아줬다.

25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청 자원순환과 김주완 주무관은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시민 A씨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로 준비한 1500달러(200만원 상당)을 실수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쓰레기봉투를 버렸던 현장에 가봤지만 이미 청소차가 이를 수거해간 뒤였다.

김 주무관은 즉시 해당 구역 청소업체에 연락해 청소차가 아직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업체 주차장으로 향했다. 송명주 기자

경산시, 경북 첫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 실시

초·중 4개학교 우선 진행
주먹밥·죽·떡 시범 운영
학부모 1000원 자부담

경산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실시된다. 경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이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선거구·국민의힘)은 23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 학부모 간담회를 주최했다.

박 위원장은 "아침 식사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치니는 중요한 요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며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간편식의 종류나 제공 방식, 영양 균형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의견을 적극 수용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다졌다.

박 위원장은 또 "우선 초교와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고교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22대 총선에서 학생 아침 식사 지원을 공약으로 내 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이날 영상 축사에서 "아침 식사 지원은 아이들과의 약속(선거공약)으로 반드시 양질의 아침 급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채아 교육위원장과 함께 활력있게 추진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협조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경북교육청은 경산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개교를 공모해 10월~12월 학생 간편식 지원사업 시범운영 방침을 밝혔다.

간편식은 주먹밥, 죽, 떡 등 곡물위주로 제공된다.

간편식 가격은 1식 4000원으로,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학부모가 1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자부담이 없다.

자부담과 관련해 박채아 위원장은 "여러 조사에서 간편식이 무료일 경우 신청하고 안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범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아침 간편식 제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道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기관' 20곳 가지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 과정 강화

경북교육청이 이상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도내 유치원 10곳과 어린이집 10곳 등 20곳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기관으로 가지정해 운영한다. 2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선정된 곳은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9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신청서 접수 결과 유치원 30곳 어린이집 77곳이 참여를 신청했다.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심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10곳이 1차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상담을 한 후 경북교육청과 함께 결격사유를 조회해 최종 시범사업 운영 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은 최대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이 예산은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를 위한 추가 배치 교사의 인건비와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연수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시범사업 운영 기관은 학부모 수요조사로 아침 돌봄과 기본 운영시간, 저녁 돌봄 등을 하루 12시간 운영하게 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3세는 1대 13, 4세는 1대 16, 5세는 1대 18로, 어린이집 0세는 1대 2 비율로 낮추게 된다.

또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이음 교육과 지역 사회 연계, 정서·심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연구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역 환경에 맞는 이상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학습공동체 지원, 컨설팅, 이음 교육 등을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할 계획이다.

가지정 된 곳의 명단은 경북교육청 또는 경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사업은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선정된 기관이 연구 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유아 중심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기후대응댐 후보지 운문댐… 운영 기준 비현실적"

"공급량 30년전과 동일해"
현재 환경 맞는 개선 요구

청도군은 기후대응댐 용수 전용 건설 후보지인 운문댐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사항 반영을 촉구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가진 22일 협의에서 운문댐 공급량 등 현행 운영기준이 30년전 댐 건설 당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댐 주변 환경은 크게 변했으나 공급량은 30년 전과 여전히 동일하다며 현재 환경에 맞는 개선을 요구했다.

군은 동창천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하천유지수 확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정수공급량 확대, 노후관로 교체, 송수관로 복선화 등 건의 사항 반영을 요청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기후대응댐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운문댐은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미래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는 기후대응댐의 용수 전용댐 후보지로 선정됐다. 조여은 기자

계명문화대 창업역량 강화교육 마무리

1인 창조기업센터 연계
e커머스 활용 상품 홍보

계명문화대학교가 12~14일까지 3일간 대학 복지관에서 '2024년 창업역량 강화교육(영상편집)'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달서구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와 계명문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입주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e커머스 마케팅에 필요한 영상편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영상편집 뿐 아니라 유튜브브랜드 계정 만들기, 숏폼 만들기,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및 꾸미기, AI를 활용한 대본 추출 및 자동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e커머스를 활용한 기업 및 상품 홍보에 관한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계명문화대학교 김윤갑 산학협력단장은 "예비창업자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온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창업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 마케팅 관련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강화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 개최
젊은 작가 40명 참여, 다양한 장르 선뵈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새달 7~10월 6일까지 30일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이라는 주제로1970년대 현대미술을 이끈 김영진, 곽훈 작가부터 청년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젊은 작가들까지 총 40명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제13회를 맞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는 매년 동시대미술의 경계를 아우르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

올해는 본 미술제의 모태이자 정신적 근간인 1974년'대구현대미술제'의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본 미술제에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강효연 예술감독은 1974년도 당시 청년들이 만들어 낸'대구현대미술제'의 50주년을 기념해 청년작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역사성과 지역성, 대중성까지 고려한 총 40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낭만, 영원, 꿈, 믿음, 도전, 유토피아'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이라는 전시주제를 정했다.

전시주제를 통해 '생과 사'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에 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인간사 너머에 영원함이 있을 거라고 믿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멸과 영원을 갈망하는 욕망과 바람의 형태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펼쳐나간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내 전시장까지 전시 영역을 확대, 다양한 실험적 작품을 선보인다.

강정보 디아크 광장의 경우 70년대 현대미술을 이끈 곽훈 작가의 퍼포먼스와 김영진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미디어, 설치, 조각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된다. 달성문화도시센터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작가 5명의 수상작 전시와 달성미술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강정보 디아크 광장 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나 전년도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때 큰 호응을 얻은 디아크 실내 전시장도 회화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며, 달천예술창작공간 제4기 입주작가 6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에 자세한 내용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홈페이지 (www.dalseong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달성문화재단 ☎ 053)668-4242로 문의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구미·울진' 선정

2027년 2월까지 교육 진행
구미시, 금오공대 협력 추진

교육부 주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공모에 경북에서는 구미시와 울진군 2곳이 최종 선정됐다.

2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공모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교육 경감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21일 교육발전특구 19개 선도 지역 중 희망 지역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10~11일 지역별 대면 상담으로 운영 계획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최종 운영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기간에 맞춰 다음 달부터 2027년 2월까지 진행된다. 매년 5억~7억원이 지원된다. 이정수 기자

대구 온열질환자 60명 육박

올여름 대구의 온열질환자가 60명에 육박했다.

전국 누적 환자 수는 3000명을 돌파해 역대 두 번째 수치를 기록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더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신고된 대구 온열질환자는 5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

대구는 이날도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온열질환자 발생 우려가 높다.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지난해보다 443명 증가한 3058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에 노출돼 숨진 전국의 추정 사망자는 28명이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운영된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수치로 기록됐다.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나온 해는 2018년으로, 당시 사망자 48명을 포함해 총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황태용 기자

박한상, 저출생극복 성금 1000만원 전달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이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

전달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지역 건설인들도 적극 동참하여, 문제해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건설인들이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금 기부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코스피 (−0.22p) 2,701.69	▲ 코스닥 (−0.03p) 773.26
▼ 엔 화 (+0.25p) 920.97	▼ 유 가 (−0.05p) 1,676.60
▲ 환 율 (−1.04%) 1,329.00	▲ 금(金) (406,275원) 108,340

www.dgy.co.kr

'성주호' 관광지 공식 지정…미래 관광 100년 조성

20여년 기다림 성주호 관광지로 찬란한 도약

성주군 금수강산면에 위치한 성주호 주변(지정면적 A=383,048㎡)이 오랜 기다림 끝에 공식적인 관광지로 지정·고시 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호의 관광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성주군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성주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 산악 및 수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성주군의 미래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중심지로 만든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년간 산림보호구역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개발 관련 계획들이 검토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성주호 주변의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지난 22일 성주호 관광지가 지정·고시돼 성주호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체류형 호수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성주호 관광지 지정은 성주군 1호 관광지다.

성주호의 탁월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몫한다.

성주군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자 성주군 미래 관광 100년을 위한 성주호 관광지 조성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서 의미가 깊다.

성주군 관광객 중 숙박 방문객 비율을 경북도 평균 비율과 비교해보면 성주군의 경우 '2022년 기준 9.1%이다. 경북도 평균은 20.8%를 보이고 있다. 성주군의 숙박 방문객이 경북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 그동안 역사문화자원, 자연환경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자원의 점적인 개발에 편중됐다. 무엇보다 지역 내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간 연계가 부족, 관광객이 당일 여행을 중심으로 단순 경유하는 관광 행태를 보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었다.

이제는 관광콘텐츠와 편의시설을 도입, 성주군의 체류형 숙박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을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 성주군 내 관광자원을 연계해 폭넓은 관광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관광지 지정 다음 단계로 관광지 내에 성주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남은 행정절차와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군은 경북도에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한다.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성주호 주변으로 관광

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성주호 주변으로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점과 카페테리아, 특색있는 볼거리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교와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국적인 리조트, 즐거움이 넘치는 다양한 산악·수변 놀이시설 등을 포함, 성주호를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복합 관광지로 만든다.

도재훈 기자

무료 반려동물 행사 참석 상품 받아가세요~

경북대 동물병원 교수 초청 반려동물 의학 무료 강의 실시

iM뱅크는 오는 31일 침산동 제2본점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반려동물 가구 고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다양한 금융 및 생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는 지난 6월 경북대학교 동물병원, 림피드㈜와 체결한 '반려인 대상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에 다라 진행된다.

경북대학교 동물병원 배슬기 교수의 '강아지 식이 알러지 검사, 꼭 필요할까요?'와 구윤회 교수의 '보호자가 알아야 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강의가 무료로 진행된다.

당일 참석자 전원에게는 ㈜림피드의 '트러스티푸드 스페셜 패키지'와 ㈜온힐펫이 협찬하는 '메디테일 반려견 프리미엄 영양제' 등 7만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된다.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경북대학교동물병원의 건강 기초검진권'을 5명에게 제공한다. iM뱅크(아이엠뱅크) 앱 행사 페이지에서 26일 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 여부는 28일 iM뱅크 앱 쿠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뱅크는 관련 서비스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가정 고객을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지역 유일 거점 국립대 동물병원인 경북대학교 동물병원과 영양전문 수의사 및 IT전문가가 창업한 펫푸드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림피드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상품인 '세븐적금'과 결합해 반려인들에게 재테크와 유용한 정보를 준다.

7개월간 주 단위 자동이체로 '작지만 큰 행복'을 추구하는 펀 세이빙 상품인 '세븐적금'은 최고 연 4.50%(세전, 7개월 기준, 월 최고 30만원까지 추가 입금 가능)의 상품이다.

현재 새달 6일까지 세븐적금 가입 시 펫캉스 지원금 및 강아지 간식을 추첨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추후에도 다양한 분야와 협업한 행사를 한다.

iM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관심 분야를 양질의 정보와 결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道 국외 전담여행사, 신규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국외 전담여행사, 전통 현대적인 멋이 있는 안동지역 팸투어 시행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외 전담여행사를 초청해 안동에서 22~23일 이틀간 1박2일 체험형 상품개발 팸투어를 했다.

팸투어는 3월 주력 국가별(중화권, 아시아, 구미주) 전담여행사 16개 사를 대상으로 경북의 전통과 현대적인 멋이 어우러진 '안동'을 답사했다.

신규 경북 체류 상품개발 유도와 하반기 국외 전담여행사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팸투어단은 지난 22일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답사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이 낭만적인 월영교에서 문보트를 체험했다.

23일은 봉정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험, 한복 및 활쏘기 체험 콘텐츠를 보유한 한국문화테마파크, 국제적 규모의 회의장이 있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등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경험했다.

현지답사 중 전담여행사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윤용찬 기자

대구 상장기업…차부품·IT 호조, 이차전지 부진

연간 매출 1위 기록했던 이차전지 기업 엘앤에프 상반기 매출 1조 1900억 작년같은기간 2조7000억 절반에도 못미치는 부진

대구지역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업종별로 크게 엇갈렸다. 차부품과 IT 업종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 반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악화됐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내수 업종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와 대구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상반기 대구 상장기업의 실적을 보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수출 호조로 지역 차부품 업체와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실적이 많이 개선됐으나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국내 자동차 램프 분야 점유율 1위인 에스엘은 상반기 2조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28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용 도어 개폐장치 등을 제조하는 피에이치에이도 매출액이 58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302억 원과 362억 원으로 각각 7.8%, 5.6% 늘었다.

자동차 범퍼와 자동변속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삼보모터스도 지난해 상반기(7082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7869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465억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전문업체인 이수페타시스는 4000억 원이 넘는 매출에 영업이익 500억 원을 넘겼다.

반면 지난해 대구지역 상장기업 중 연간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상반기 매출이 1조1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7000억 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상반기 434억 원 흑자에서 288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 7748억 원, 영업이익 476억 원을 기록한 농기계 전문 업체 대동은 매출 7%, 영업이익은 25%가량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실적도 좋지 않다.

HS화성은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4546억 원보다 28%가량 줄어든 3282억 원을 그쳤고 영업이익은 196억 원으로 전년 동기(234억 원)보다 16% 감소했다.

다만, 서한은 상반기 매출이 4063억 원으로 전년(2830억 원)보다 40% 이상 늘었다.

영업이익도 184억 원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유통업체도 고전을 면치 못해 대구백화점의 상반기 매출은 281억 원으로 전년 동기(315억 원)대비 10.8% 줄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출을 주도한 신성장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내수 기반 업종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 추석맞이…최대 50% 할인

추석맞이 할인쿠폰 대공개 안동장터 추석… 10% 할인

경북도가 운영하는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서는 추석을 맞아 9월 13일까지 '2024년 추석맞이 소원 성취 할인쿠폰' 행사를 한다.

행사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수요 특가와 신규회원 가입 행사도 함께 진행,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과일, 축산물 등 카테고리별 추석 선물 세트 전용관을 설치, 가격대별 선물 세트관을 운영해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도내 시군 농특산물 쇼핑몰의 추석 행사 또한 한자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시군몰 추석 행사관도 함께 운영한다.

한우, 사과, 곶감, 배, 포도 등의 시군 특산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2007년 문을 연 경북 농특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는 우수한 상품과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 매출액 455억원, 입점농가 2,200여 호, 회원수 13만 명을 넘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왔다.

올 상반기 회원수는 18만 명에 육박했다.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늘어난 164억원에 달하고 있어 올해도 사상 최대 성과가 전망된다.

2007년 매출액 2억원, 회원수 2,487명 → 2023년 매출액 455억원, 회원수 13만2506명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164억원(전년동기대비 14.1%↑)이다.

현재 회원수는 17만8694명이고 2783호 농가가 입점해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식품유통국장은 "올 추석에도 감사한 분들께 전하는 따듯한 마음은 고향 정성이 가득한 '사이소'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안동시도 추석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버 안동장터'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9월 13일까지다.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고객은 2000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고객은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은 10% 할인(최대 5만원)한다. '사이버 안동장터'는 안동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위해 2004년 구축했다.

현재 입점업체는 270개, 등록상품은 3800개이다.지난 2월에는 '사이버 안동장터'와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 안동장터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애용해 지역농가도 살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경주시, 돌발해충 예방에 협업방제 '총력'

경주시의 농경지 및 산림지역 돌발해충 협업방제가 이목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2~30일까지 8일간 해당 지역에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토마토뿔나방 등 돌발해충의 피해를 막고자 공동예찰을 한다.

규모는 산내·암곡·강동 등 산지인접 과원 100ha 정도다. 돌발해충은 기후변화와 외래 해충 유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해충을 말하는 것으로 5월 알에서 깨어나 10월까지 활동,작물을 고사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준다.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시기는 약충기에서부터 산란기 전 성충기까지이다.

피해증상은 그을음병, 흡즙, 수세약화, 상품성과 수량 감소 등이 있다.

중앙정부 힘 분산시켜야 지방정부 산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성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막내렸다. 행사는 지난 22,23일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는데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의 비전을 꾀하는 자리다.

'대한민국의 혁신 :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자치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은 물론 도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는 대구시, 경북도, 경주시 등이 함께 주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를 위한 이슈를 주제로 수십여 편의 논문을 이틀간에 걸쳐 발표했다.

행사기간 김학홍 행정부시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 행정체계 개편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차관은 "지금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중심의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며 "국가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과 시민사회,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첫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특별 세션을 비롯, 광역시 주민참여정책진단 라운드 테이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장정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둘째 날에는 한국지방자치의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문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했다.

경기북구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과 규제개선 전략을 위한 특별 기획세션,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등이 진행됐다.

여기에 디지털 트윈과 사회안전, 자치경찰제 이슈, 기후 위기와 물 자치 등의 임시총회도 열렸다.

경주시, 2024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원도심 상권활성화 발판 마련

경주시가 지난 21일 황오동 원도심 프론티어 벨리에서 개최된 '2024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발표와 시상식이 성황리 마무리 됐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앞장설 창업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9~8월 5일까지 진행했다.

공모 결과 일반부 19건, 청소년부 5건 총 24건이 접수됐다.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일반부 6건, 청소년부 3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일반부에서는 황오동 원도심을 배경으로 주령구를 사용한 로컬투어상품인 '썸 IN 경주'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경주로컬푸드를 이용한 친환경 어메니티의 리필스테이션을 제안한 '경주 에코아지트'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부에서는 이벤트형 독립서점을 제안한 경주여고 박지혜양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폐교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제안한 경주 공업고등학교 창업동아리의 '경주 농사꾼(정시우, 최서윤)'팀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경주시장상) 및 최우수상(경주시의장상), 황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상, 우수상(성동시장상인회장상) 등 부문별 수상작에게는 창업준비금이 주어진다.

사업화 단계를 희망하는 팀에게는 멘토링, 물품 및 기술 등이 지원되며, 창업 교육 등 다방면의 후속지원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원도심 상권에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자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순풍에 돛

市,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폐업률 0% 성공 사례 쭉 청년창업 활성화 확대…

경주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부흥에 박차를 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청년 지원 제도로 청년 사업자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청년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표 청년 창업 정책인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은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과 경주 황오동 내 유휴공간, 시설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만든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19개 업체가 창업에 성공했다.

폐업률 0%를 기록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6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한다.

일본 라멘 전문점 '대호당'은 이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주낙영 경주시장이 황도동에 열린 청년창업 5개팀 개소식에 참석해 청년 창업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호당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개업했는데 월 평균 1000여 명의 이용객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식당은 경주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참가자미 블렌딩 스프를 비법으로 삼아 황오동에서 가장 핫한 식당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김대호 대호당 대표는 "경주시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황오동의 낙후된 상권을 제2의 황리단길로 만들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도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경주를 대표하는 맛집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기술창업, 지식창업, 6차산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업한 '강한엔지니어링'은 드론을 활용한 측량 사업으로 지난해 연매출 1억 5000만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타 지역 청년들의 경주 유입을 돕는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 면접 준비비(5만원, 4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기업·근로자 각 3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신규·경력직 채용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10만원 한도 실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월 20만원) 등이 있고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30만원) △청년 임대주택(임대형 68가구, 매입형 19가구)도 추진한다.

경주 아열대·치유농업관 준공 앞둬…

벤로형 유리온실 1520㎡ 규모 열대작물, 공기정화식물 심어

경주 내남면 신농업혁신타운 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힐링공간이 들어선다.

시는 18억원 예산을 들여 열대작물을 관람할 수 있는 아열대농업관과 원예치유 실습 공간인 치유농업관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규모는 벤로형 유리온실 2동이다.

아열대농업관은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오른 기후변화에 적합한 아열대작물 온실로 '올림'으로 명칭을 선정했다.

실내에는 바나나, 올리브, 커피나무 등 50여 종 대표 열대작물이 전시된다.

치유농업관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마음을 내려주는 치유농업 온실로서 '내림'으로 명칭을 정했다.

안에는 허브식물, 공기정화식물 등 30여 종의 식물들과 실습장이 갖춰졌다.

'내림' 온실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원예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농업혁신타운에는 '올림내림' 온실을 비롯해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배움', 작목별 실증시험포장인 '키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지역농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 될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농업혁신타운이 농업시험연구단지 용도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도 농업을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출산으로 경영 단절 없는 환경 조성

경주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00만원 지원

경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배우자)에 연속된 6개월 기간 동안 채용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경영 단절 없는 환경을 조성,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북도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체인력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경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소상공인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된다.

지원금 청구는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를 선 지급한 후 경북도 경제진흥원으로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지원사업안내)을 참고하거나 상담센터 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간다.

경주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인기'

야척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위한 마을설명회 개최

경주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사업이 상종가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글자 그대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을 설치, LPG의 안정적 공급이 목적이다.

시와 LPG사업관리원은 선도동 야척마을 회관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열린 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과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선도동 야척마을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탓에 등유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높은 난방비와 잦은 LPG용기 교환이 큰 부담이었다.

심야 시간과 휴일에는 LPG용기 배달이 안 돼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이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설치 사업을 크게 반기는 이유다. 시는 야척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

앞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7년부터 월성동 천원마을과 보덕동 대성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개 마을 461세대에 LPG배관망을 구축한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 주민분들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울진, 한우 경쟁력강화 교육 실시

울진군은 지난 21일 울진축협유통센터에서 축산농가 80여명을 대상 으로 한우 정책방향 설명 및 개량사업 교육을 했다.

교육은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 정대진 연구사님을 초청해 최근 한우 가격하락 및 사료값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우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을 하게 됐다. 울진한우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혈통등록 및 관리로 한우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조사료생산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돼 축산농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축산농가에서는 내년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 개통… 울진 철도시대 연다

2014년 착공…올 12월 개통 예정
환승 없는 서울행 노선 개설추진
철도 개통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교통이 불편한 탓에'등허리 긁어 손 안 닿는 곳'이라 불리던 울진군. 하지만 울진군은 어려운 교통 여건 속에서도'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최근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조성을 위한 예타면제까지 이뤄내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

오는 12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철도가 개통돼 울진에도 열차가 운행돼 힘차게 달린다.

동해선(포항~삼척)은 2018년 포항~영덕 구간이 1단계로 개통 완료됐다.

영덕~삼척 구간은 2014년 착공해 올해 12월 개통 된다. 동해선 개통으로 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구간에 'ITX-마음'이 운행된다. 정확한 운송 일정은 철도 공사의 수송 계획에 따라 올 가을 확정된다.

군은 이번 철도 개통으로, 새로운 교통망 구축과 더불어 외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난.

군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울진군을 찾게 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안 허리 경제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이번 동해선 개통이 울진군 발전과 더불어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철도 운행과 관련, '환승 없는 서울 노선 개설'을 위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하고 있다.

기존 계획된 'ITX-마음'과 더불어 'KTX-이음' 열차가 병행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 시대 개막과 함께 울진을 방문할 관광객들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열차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도와 대중교통을 연계한 관광상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관광 접근성을 더욱 강화한다.

철도 개통 전인 9~12월까지 포항, 영주, 동해역과 연계한 체류형 철도 여행 상품을 운영, 2025년 1월부터는 울진역으로 직접 모객하는 철도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철도역에서 울진 관광지로 이동의 편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해선 개통은 단순한 교통수단 도입의 의미를 넘어 많은 의미가 있다.

군은 이번 철도 개통이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개통 전까지 최선을 다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철도 개통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운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울진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손 군수는 "철도를 이용한 울진 방문은 편리함과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 많은 관광객이 울진을 찾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포항 고수온 피해 발생 양식장 현장점검 실시

양식장 27개소서 119만 마리 폐사
액화산소 · 순환펌프 등 긴급 지원

포항시가 최근 계속되는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주의보가 지속되면서 지역 내 양식장의 피해가 잇따르자 어업인 피해 최소화와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2일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한 남구 구룡포읍에 위치한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양식어류 협회 회원 등 어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포항 지역 내에는 총 93개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1,317만 마리의 어류가 양식되고 있다. 특히 고수온으로 피해가 큰 육상수조식해수양식장은 포항에서 40곳이 운영 중이며, 22일 현재 양식장 27개소에서 어류 119만 마리가 폐사하는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전 해역은 지난 12일부터 고수온주의보가 계속 발령돼 있으며, 포항시 연안 표층 수온은 한때 29.8℃까지 치솟았다.

시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부터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양식장 관리 요령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액화산소 821톤, 순환펌프 797대, 얼음 3,750각(1각 135kg)을 양식어가에 긴급 지원하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펄펄 끓는 바다 앞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는 전체 양식어류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강도다리의 경우 고수온에 취약해 조기출하를 유도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출하량이 적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어업인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액화 산소 및 방제장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과 보험금 및 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장은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과 양식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어업인 단체 톡방 개설 등 신속한 피해 신고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해 신속·정확한 피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울릉군 산마늘 자생지 항공 파종 완료

성인봉 일원 약 100ha 면적
자생지 복원 효율적 확대

울릉군은 지난 23일 산림생태계 개선과 지속적인 임산물 채취 기반 마련을 위해 성인봉 일원 약 100ha 면적에 산마늘 종자 4,990kg을 헬기를 이용해 '항공파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마늘종자 파종은 '산림생태계 개선사업'의 하나로 울릉군 대표 임산물인 산마늘의 계속적인 채취로 자생지역이 점차 험준한 곳으로 축소되고 있어 산악 추락사고를 방지하고자 농가로부터 산마늘 종자를 수매하여 산마늘 자생지에 파종하는 사업이다.

항공파종의 장점은 험준한 지형에도 비행을 통한 효율적 접근으로 대규모 면적에 균일하게 살포가 가능해지다 보니 자생지 복원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고 노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았다.

울릉군은 2018년부터 해마다 약 1,000kg의 명이 종자를 수매하여 산림 내에 인력으로 파종하였으며 2021년부터 파종 수량과 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관광헬기를 운영하는 ㈜더스카이 사의 협조를 받아 기존 사람의 손길을 대신해 항공파종을 하고 있다.

울릉군수는 "이번 산마늘종자 항공파종으로 명이 자생지 복원과 산림 유전자원 보전에 기여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임산물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구조자, 청송의 영웅을 만나다"

수면 아래 잠긴 트럭 운전자 구조

청송소방서는 지난달 10일 청송읍 월막리 용전천에서 수면 아래에 완전히 잠겨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1톤 트럭 운전자를 성공적으로 구조한 데 이어, 오늘 그 운전자가 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구조한 김광수 대원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운전자는 "소방대원들의 빠른 대응과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당시 구조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인근을 지나던 청송여성의용소방대원이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청송소방서

119구조대원(소방장 김광수)은 수난구조장비를 장착하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급물살에 휩쓸려 위태롭게 수면 아래에 완전히 침수되었던 트럭을 결착해 크레인으로 인양했다.

구조대원은 곧바로 차량 내에 갇힌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운전자의 생명을 구했다.

이번 구조 활동은 청송소방서의 우수한 대응 능력과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사회에 큰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급류에서의 구조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1998년 대구 금호강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소방관 2명이 순직했고, 2011년 강원도 영월 계곡의 급류에서 인명 구조 중 소방관이 순직했으며, 2020년 전남 구례 피아골에서 구조 작업 중 소방관이 급류에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급류 구조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윤병문 기자

제1회 영덕 '달빛고래 트레킹'

영덕군은 블루로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선한 가을밤 어선 집어등을 달빛 삼아 밤바다를 걷는 특별한 야간 트레킹 행사인 '달빛고래 트레킹'을 다음 달 28일 개최한다.

'달빛고래 트레킹'은 고려 말 목은 이색 선생이 고래가 바다에서 뛰노는 모습을 본 것에서 유래한 고래불 권역에서 멀리 달빛처럼 보이는 어선 집어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간 트레킹의 의미를 합쳐 이름지어졌다.

이번 행사는 일반 코스와 가족 코스로 나뉘어, 일반 코스의 경우 영리해수욕장에서 출발해 상대산 정상을 거쳐 도착지인 대진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6.8km 구간이다.

가족 코스는 영리 해수욕장에서 곧바로 대진 해수욕장에 도착하는 평평한 3.8km 구간이어서 가족이 함께 걷기 좋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다양한 조명을 활용해 이색적인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발지인 영리 솔숲 데크길은 알전구와 반딧불 조명을 활용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래불 앞바다에는 어선을 띄워 집어등을 환히 밝혀 어촌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조명을 연출하게 된다.

또한, 행사 구간 곳곳에는 로고젝터를 활용해 영덕군의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도착지인 대진 해수욕장에는 캠프파이어를 운영해 가을밤 트레킹을 낭만으로 가득 메울 예정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트레킹에 참여해 해당 구간을 완주하고 일정 운동량을 충족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다양한 선물도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관광포털 '스테이영덕(www.ydst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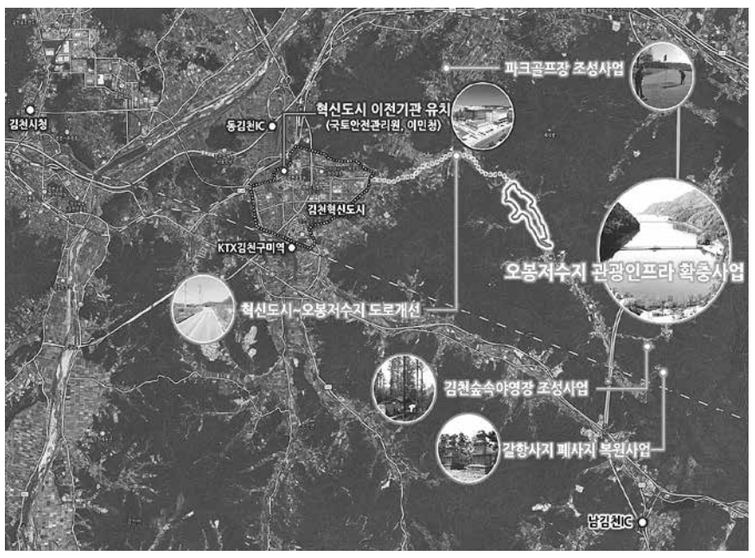
예천군, 아이사랑 돌봄버스 운행

예천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아이사랑 돌봄버스'를 경상북도 최초로 운행한다.

아이사랑 돌봄버스는 학교와 돌봄센터 등 아동들이 이용하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예천읍과 도청 신도시를 순환하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 K-보듬사업 10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아동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경북 최초 아이사랑 돌봄버스 운행을 기념해 23일 10시 김학동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도의원, 경북도 관계자, 유관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사랑 돌봄버스 운행 기념식을 가졌다.

송명주 기자



김천오봉저수지, 관광명소! 명품 휴식처로 탈바꿈!

갈항사지 복원사업 400억원 투자
도보와 자전거 접근성 크게 향상
김천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등 추진
동서남 잇는 환상형 관광밸트 구축

김천시의 오봉저수지 주변이 가족친화 공간,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힐링의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 남면 소재의 오봉저수지는 김천혁신도시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고, KTX역과 동김천IC, 남김천IC에서 15분이내 거리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김천8경에 오봉저수지 둘레길이 선정될 정도로 산책과 휴식의 공간으로 김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봄철 벚꽃길을 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주변은 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규제를 받아 방문객들이 부족한 인프라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관광명소로서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연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수변구역 규제에서 해제돼 각종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비롯해 혁신도시~오봉간 인도설치, 김천숲속야영장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국도비 포함 총400억원을 확보해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신라천년 고찰인 갈항사 폐사지 복원 사업도 탄력을 받아 오봉저수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2023년 8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 반영됨으로써, 2018년에 조성된 오색테마공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부족했던 음식점, 휴게시설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주변연계사업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오봉지구를 관광권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국도비 투자 연계사업 추진

김천시는 오봉저수지의 변화를 위해 각종 연계사업을 추진중이다.

김천혁신도시에서 오봉저수지까지 약4km 도로를 개선(100억원)해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김천숲속야영장 조성사업(60억원)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오봉저수지 일원 우수한 산림을 바탕으로 산림문화, 휴양, 체험등의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김천혁신도시 이전기관 유치

김천혁신도시에는 현재까지 12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자리잡고 있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더불어 기관 근로자들이 오봉저수지를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천시에서는 2021년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를 유치에 성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수려한 자연경관

오봉저수지는 수려한 농촌의 자연경관으로 김천시민에 사계절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봄철 만개하는 벚꽃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가을에는 오봉저수지 주변 산림에 펼쳐지는 단풍의 모습도 환상적이다. 또한 산책로와 녹지공간에 설치된 야간경관 조명은 이용객의 안전과 더불어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김천시는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존해 지역의 자산으로 더욱더 부각시킬 계획이다.

▣ 농촌과 도심을 잇는 환상형 관광밸트 구축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비롯한 주변 연계사업을 통해 관광권역으로 탈바꿈되면 김천시는 오봉저수지권역-직지사권역-부항댐권역-증산권역으로 동서남을 잇는 환상형 관광발전밸트를 구축하게 된다.

기존 김천지역의 서남측에 집중된 관광자원들의 한계에서 벗어나 동측에 위치한 오봉저수지의 발전을 통해 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형 로컬셀러 양성 교육 2기 개강

상반기 교육 16개 스토어 개설

의성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전문 강사진과 함께 수강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방법'을 주제로 한 1차시 강의를 시작으로 2024 의성형 로컬셀러 양성교육(2기)을 개강했다.

지역의 농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18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교육은 키워드 추출 및 상품 등록, AI를 활용한 제품 영상 제작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판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3월~5월에 진행된 1기 교육을 통해 총 16개의 스토어가 개설되었으며 개설자의 80%에 실매출이 발생했다.

또, 기존 셀러의 평균 매출이 50% 증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이버 셀러등급 '파워'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군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의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주체가 돼주길 기대한다. 추후 9월에 예정돼있는 심화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북문동, 상주시민체전 선수단 발대식 개최

선수 등 관계자 70명 참석

상주 북문동에서는 북문동 번영회 주최로 지난 20일 북천야외음악당에서 선수단 발대식을 갖고 제72회 상주시민체육대회 우승 결의를 다지고 연내 최종후보지 선정을 앞둔 대구 군부대 유치 관련 주민설명회 및 퍼포먼스를 병행했다.

이번 발대식은 내달 상주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동민화합과 체전우승을 위한 다짐의 장으로 각 단체장, 번영회, 통장, 선수 등 70명이 참석해 이를 대상으로 북문동 신종원 동장이 직접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번영회장은 "시민체육대회에 각자 최선을 다해 북문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를 격려하였으며, 동민 모두가 참여해 화합되고 단결해 군부대 유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며 다짐했다.

북문동장은 "제72회 상주시민체육대회는 무엇보다도 동민 모두가 합심해 경기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동민 모두가 화합과 친목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 군부대 유치 성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화 결식우려아동 돕기 업무 협약

봉화군은 23일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민관협력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결식우려아동 3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약 7,800식(6200만원 상당)을 집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영양가 높은 밑반찬을 제공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협약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행복얼라이언스는 프로젝트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밑반찬 제조 및 배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시, 1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 나서

10개 연계협력사업 추진

안동시가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안동시장은 민선 8기 2주년 기념사를 통해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351 비전' 달성을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꾸려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도시가 점차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다.

안동은 관광자원이 산재한 곳이다. 낙동강과 안동호, 임하호 등의 자연생태자원과 더불어 불교, 유교, 민속신앙이 어우러진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최초의 지자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시는 2020년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된 이래 국·도비를 포함한 총 975.6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36개 핵심사업 △27개 전략사업 △10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 안동을 1천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성락철교 랜드마크화, 와룡터널 공간 재창출 등 월영교 주변 자원들과 연계한 관광코스화 사업 △안동호의 청정하고 수려한 수자원을 활용한 물빛 에스프리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 △ 임청각~영락교 주변 조명 확충과 영가대교 교량분수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조성 중인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인근에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존 조성 등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며 지역에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은 "안동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전통문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한 곳"이라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을 뛰어넘어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내·외국인 모두가 가장 와보고 싶은 명품 관광거점도시 안동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명주 기자

영주소수박물관 개막 20주년 학술대회

영주시 소수박물관은 23일 기증·기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개막 및 개관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민, 지역 전문가, 관련 연구자들을 초청해 소수박물관 본관 상설전시실 재개관을 축하하고, 지난 20년(2004. 9. 22. 개관)에 대한 회고와 평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상설전시실 개막식 및 전시실 관람, 2부는 학술대회(개회, 축사, 주제발표 4, 종합토론, 폐회)로 각각 소수박물관 전시실 및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학술대회 주제발표는 △'서원 자료의 현황과 소수박물관의 역할'(영남대학교 이수환 명예교수) △'소수박물관 소장 기록자료의 가치와 과제'(경북대학교 남권희 명예교수) △'영주 지역사 연구 발굴과 비전'(동양대학교 강구율 교수) △'소수박물관의 위상과 발전 전략'(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대전대학교 이한상 교수를 좌장으로 해, 경북대학교 우인수 명예교수, 한강학연구원 장인진 부원장, 동양대학교 송호상 교수, 국토문화재연구원 김태식 전문위원이 참여해 각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담당했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학술대회 종료 후 정리·보완해 소수박물관 학술총서로 12월에 발간, 배포된다.

한편, 소수박물관 상설전시실은 새로운 전시기법 도입 및 스토리라인 변경에 따른 전시물 교체를 위해 총 36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 지난 7월 준공됐다.

Opinion

신문 맛이 달라지면 신문내용도 달라져야합니다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용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칼럼

가짜 뉴스가 중요 국정 과제가 되는 나라

최 종 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우리나라는 점점 '갈등공화국'이 돼 간다.

무슨 사건이 나면 쉽게 수습되지 못하고 편을 갈라 싸운다. 세계 어느 나라나 사건·사고는 일어난다.

정상적인 나라는 관계 당국이나 전문가가 나서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인 규명부터 쉽지 않다. 전문가보다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앞장선다. 집권 세력에 불만이 있는 야당이나 언론 등이 사건·사고를 정부 비판 소재로 이용하려 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세월호 사건 현장인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에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다. 천만 촛불은 뭐고, 고맙다는 무슨 뜻인가?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엄청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사례가 허다하다. 실례를 보자.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MBC는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정청래, 정동영, 정봉주, 문성근 등의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뇌 송송 구멍 탁", "미국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등등 자극적 구호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그해 5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새빨간 거짓말로 온 나라가 뒤집어진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당시 야당과 좌파 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수많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성주에 몰려가 주민들을 선동했다.

반대 이유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라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진작 나왔으나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

오늘날 성주 참외는 그 어느 때보다 잘 팔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앞의 해류가 미국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국제기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전 처리수는 핵 폐수"라며 불안감을 한껏 키우고 전국적인 방류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그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자 정부는 수산업자 지원 등에 1.5조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수산물 소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천안함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도 숱한 조사 결과에 아랑곳없이 갖가지 조작설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사건·사고에 관한 가짜 뉴스 조작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국회와 언론에서 광우병, 천안함, 사드, 세월호, 원전 처리수, 이태원 등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했는가! 국가적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일부 세력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가짜 뉴스에 나라 전체가 휩쓸렸다.

사실상 허접한 가짜 뉴스들이 주요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한 꼴이다.

사회가 가짜 뉴스에 매몰되는 바람에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한 저출산·고령화 극복, 국민연금 고갈 예방, 양극화 해소, 반도체산업 육성, 성장동력 배양 등은 소홀히 했다.

미래 과제는 뒷전이고 가짜 뉴스에 온 나라가 열중했다.

가짜 뉴스 조작을 막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거짓말쟁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해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나아가 국회의원에도 당선된다면 거짓말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광우병, 사드, 원전 처리수 등 가짜 뉴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정치인, 언론 등은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없다.

광우병 허위 보도로 당시 국정을 마비시킨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어떤 책임을 졌는가?

국민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광우병 사건부터 원전 처리수에 이르기까지 허위 사실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나 집단은 대체로 비슷하다.

예컨대 박석운 이태원 사건 대표는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 대부분의 대표로도 활동했다.

현역 정치인들도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서는 사람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 오늘의 정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1년, 민주당은 근거 없는 괴담선동 대신 행동으로 민생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

오늘은(8월24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괴담 선동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으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작년에 전국을 돌며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당론 법안 목록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바꿔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는 모른다" 며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민생'과 '먹사니즘'이 공허한 '사탕발림'처럼 들리는 건 이 때문입니다. 괴담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시커먼 속내만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근거 없는 '괴담 마케팅'에 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은 이제라도 선동을 멈추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를 보호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논평/성명

매일신문이 대구시와 국힘당 기관지인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매일신문의 논조가 심히 걱정된다.

지난 21일자 1면 기사 제목이 "박정희 광장 민주당의 딴지, 자치·분권의 역행 논란"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을 딴지로 표현한 적이 있었던가?

어떻게 매일신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비판이 '딴지'가 되는가?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렇게 묻고 싶다.

매일신문은 오랫동안 국민의힘과 대구시의 기관지 노릇을 해왔다는 대구시민의 정당한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대구시민은 일관된 잣대로 정치를 다루는 매일신문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정에 들어서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 한 것은 매섭게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 공정해야 할 언론사인 매일신문은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더 먼저 눕는 특정시와 특정당 기관지처럼 행동하니 걱정이다.

대구시당은 앞으로도 여전히 잘한 것에는 칭찬하는 '위대한 동조자'로서 동행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대한 반대자'로 대구시민과 함께하겠다.

경북도는 독립운동사 지우기 즉각 중단하고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 현판 다시 복구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뉴라이트 계열 친일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모든 국민이 경축해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양분되는 사태가 발생된데 이어 친일사관의 소유자가 관장으로 취임한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으로 명칭변경 후 독립운동사 지우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호국보훈재단은 지난 6월4일 안동시 임하면 내앞마을에 위치한 '(재)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 법인명을 '(재)경북도호국보훈재단'으로 바꾸고 현판을 교체하는가 하면, 기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를 호국보훈재단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어디에도 '독립운동'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2017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일본의 조선 침략이 격심해지자 안동지역 혁신유림들이 1907년 '협동학교'를 세워 구국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1910년 일본의 강제합병 이후 백하 김대락, 일송 김동삼 선생을 비롯한 내앞마을 전체가 혹한을 뚫고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1945년 해방되기까지 일제강점기 전체를 관통하는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호국보훈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교훈을 퇴색시킨 경북도의 조치를 규탄하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를 다시 살리고 교체했던 기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현판을 다시 부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Sports 스포츠·건강 Health

100세 건강법

그냥 감기몸살… 끔찍한 고통 '대상포진'

수두 병력 있다면 조심… 면역력 관리 예방접종 해야

60대 A 씨는 최근 친구가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백신을 알아보는 중이다. '걸려도 괜찮겠거니' 생각해왔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친구의 말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다.

A 씨는 특히 친구의 이 말이 맴돌았다. "처음엔 으슬으슬하고 두통이 있길래 독하다는 여름 감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죽을 맛이야. 백신이 있다는데 넌 꼭 맞아."

이름은 익히 들어봤지만 막상 내가 걸리면 잘 눈치채지 못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帶狀疱疹)의 증상은 이름 자체에 답이 있다. 띠 대(帶), 모양 상(狀). 띠 모양의 발진이 생기는 게 바로 대상포진이다. 문제는 대상포진의 증상은 이 띠 모양의 발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이 포진이 생기기 수일 전부터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 미열이나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돼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은 수일간 지속되다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수포는 약 2주간 변화를 거치는데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지가 생기고 아물게 된다.

하지만 드물게 피부 발진 없이 통증만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특히 이 통증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통증이 오는 위치는 몸통이 가장 많다. 그다음은 얼굴 부위다. 또 감각 이상 증상을 느끼기도 한다. 스치기만 해도 아픔을 느끼거나 평소보다 둔감하는 등의 감각 이상이다.

물집이 한쪽 피부에만 몰려 나타나는 증상도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이러한 대상포진은 특히 7, 8월에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상포진 환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해 7, 8월로 나타났다.

무더위에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호전되지만 일부는 석달 이상 통증이 계속되는데 심한 경우 항경련제,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또 대상포진이 생긴 신체부위에 따라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상포진이 눈 주위에 생겼다면 각막염, 홍채염 등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 또 얼굴이나 귀 부위에 발생하면 안면 신경마비가 오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 롯데 꺾고 2위 유지… 롯데 3연패

삼성 라이온즈가 2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강민호와 르윈 디아즈의 홈런포에 힘입어 5-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디아즈 결승 '투런포' 힘입어 5-3으로 승리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 자이언츠를 3연패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삼성은 2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벌어진 2024 신한 쏠뱅크 KBO리그 롯데와의 경기에서 르윈 디아즈의 결승 투런포에 힘입어 5-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65승째(2무 53패)를 따낸 삼성은 2위를 유지했다. 3연패의 수렁에 빠진 롯데는 50승 3무 60패가 됐다. 선취점은 롯데가 냈다.

1회초 1사 3루에서 손호영이 희생플라이를 때렸다. 끌려가던 삼성은 4회 홈런 한 방으로 3점을 올려 리드를 빼앗았다.

4회말 이재현, 르윈 디아즈의 안타로 1사 1, 2루가 됐고, 강민호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3점포(시즌 17호)를 작렬했다.

롯데는 6회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6회초 무사 1루에서 고승민이 우월 투런 홈런(시즌 10호)을 쏘아올렸다.

삼성은 8회 3-3의 균형을 깼다.

8회말 선두타자 이재현이 좌전 안타로 출루했고, 이후 1사 1루에서 디아즈의 홈런이 터졌다.

디아즈는 상대 우완 불펜 투수 박진의 스트라이크존 한복판에 들어온 직구를 노려쳐 우중월 투런 홈런으로 연결했다. 디아즈의 시즌 2호 홈런.

리드를 잡은 삼성은 9회초 마무리 투수 김재윤을 투입했다. 김재윤은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고 팀 승리를 지켜 시즌 5세이브째(4승 8패)를 챙겼다.

삼성 선발 황동제는 5이닝 3피안타 4탈삼진 3볼넷 2실점(1자책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발판을 놨다.

7회초 1사 3루 위기에 등판한 최지광은 1⅓이닝을 1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시즌 3승째(1패)를 품에 안았다.

롯데 선발 애런 윌커슨은 7이닝 6피안타(1홈런) 7탈삼진 1볼넷 3실점으로 쾌투를 펼쳤지만, 타선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승리가 불발됐다.

뒤이어 등판해 ⅔이닝 2실점으로 흔들린 박진이 패전 투수가 됐다. 시즌 4패째(1승 1세이브)다. 임도형 기자

신지애, AIG 여자오픈 3R 1위 도약…11년 만 우승 도전

버디 7개, 보기 2개 묶어 5언더파 67타

신지애<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총상금 950만 달러·약 126억원) 3라운드 선두로 도약했다.

신지애는 25일(한국시각)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이로써 신지애는 7언더파 209타를 기록하면서 11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를 섭렵한 그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신지은은 버디 2개를 기록하며 4언더파 212타로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4위에 머물렀다.

임진희는 3언더파 213타로 공동 6위, 김효주는 1언더파 215타로 공동 16위, 이소미 이븐파 216타로 공동 19위에 올랐다. 지난 6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양희영은 공동 27위(1오버파 217타)에 그쳤다.

이미향(2오버파 218파)은 공동 34위, 김세영, 최혜진, 유해란(이상 3오버파 219타)은 공동 43위, 안나린(4오버파 220타)은 공동 58위, 김인경(8오버파 224타)은 82위에 위치했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릴리아 부(미국)는 2위(6언더파 210타)로 신지애를 맹추격했다.

경산시장배 파크골프대회

제6회 경산시장배 파크골프대회가 26일 남천강변 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경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산시파크골프협회(회장 조제숙)가 주관한다.

총 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경산의 남천강변을 배경으로 열띤 경합을 펼친다.

대회는 개인전 스트로크 방식으로 18홀 합산 저타수 기록 경쟁 방식으로 진행, 남녀 부문 각 입상자들에게는 트로피 등의 부상이 지급된다.

조제숙 경산시파크골프협회장은 "참가 선수들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즌 1·2호골' 손흥민, 에버턴전 MOTM·평점 9점대

개막 2경기 만에 시즌 1, 2호골을 폭발한 손흥민(사진·토트넘)이 에버턴전 최우수선수(맨 오브 더 매치·MOTM)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EPL 2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며 시즌 1, 2호골로 토트넘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승격팀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1-1 무) 부진으로 현지 매체의 날 선 비판을 받았던 손흥민은 이날 멀티골로 날아다니며 자신을 향한 혹평을 잠재웠다.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25분에는 엄청난 질주로 에버턴의 조던 픽포드 골키퍼를 압박해 공을 탈취한 뒤 빈 골문을 향해 차 넣었다.

3-0이던 후반 32분에는 역습 찬스에서 미키 판더펜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뚫어 4-0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경기 후 EPL 홈페이지에서 팬 투표로 뽑는 MOTM에 선정됐다. 무려 65.8%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위 판더펜이 13.5%였다.

이날 손흥민은 총 3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이 중 2골을 터트렸다.

영국 매체들도 엄지를 세웠다.

풋볼런던은 "왼쪽 측면부터 끝까지 압박하는 본보기를 보여 득점에 성공했다"며 "이후엔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두 번째 골까지 만들었다"고 팀 내 최고인 평점 9점을 매겼다.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양 팀 통틀어 최고인 9.1점을 부여했고, 풋몹도 9.0점을 줬다.

건강보험공단 소식

'하늘반창고 키즈' 사회공헌활동

가장 외로운 첫발 내딛는 신망애 아이들의 시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는 최근 수성구에 있는 '대구신망애원'의 아동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늘반창고 키즈'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수성지사는 지역아동의 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난 5월 대구신망애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신망애 꿈나무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전달한 후, 봉사단원들이 직접 화채를 만들어 점심식사 배식 봉사와 함께 아동들에게 일일이 나눠 주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태 수성지사장은 "건강보험 하늘반창고 키즈' 봉사활동으로 가정에서 소외돼 힘든 유년·청소년시기를 보내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잠시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단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을 바탕으로 아동의 곁에서 적극인 후원자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2005년부터 20여 년간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 약 1만4000명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전국 지사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 미래지킴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